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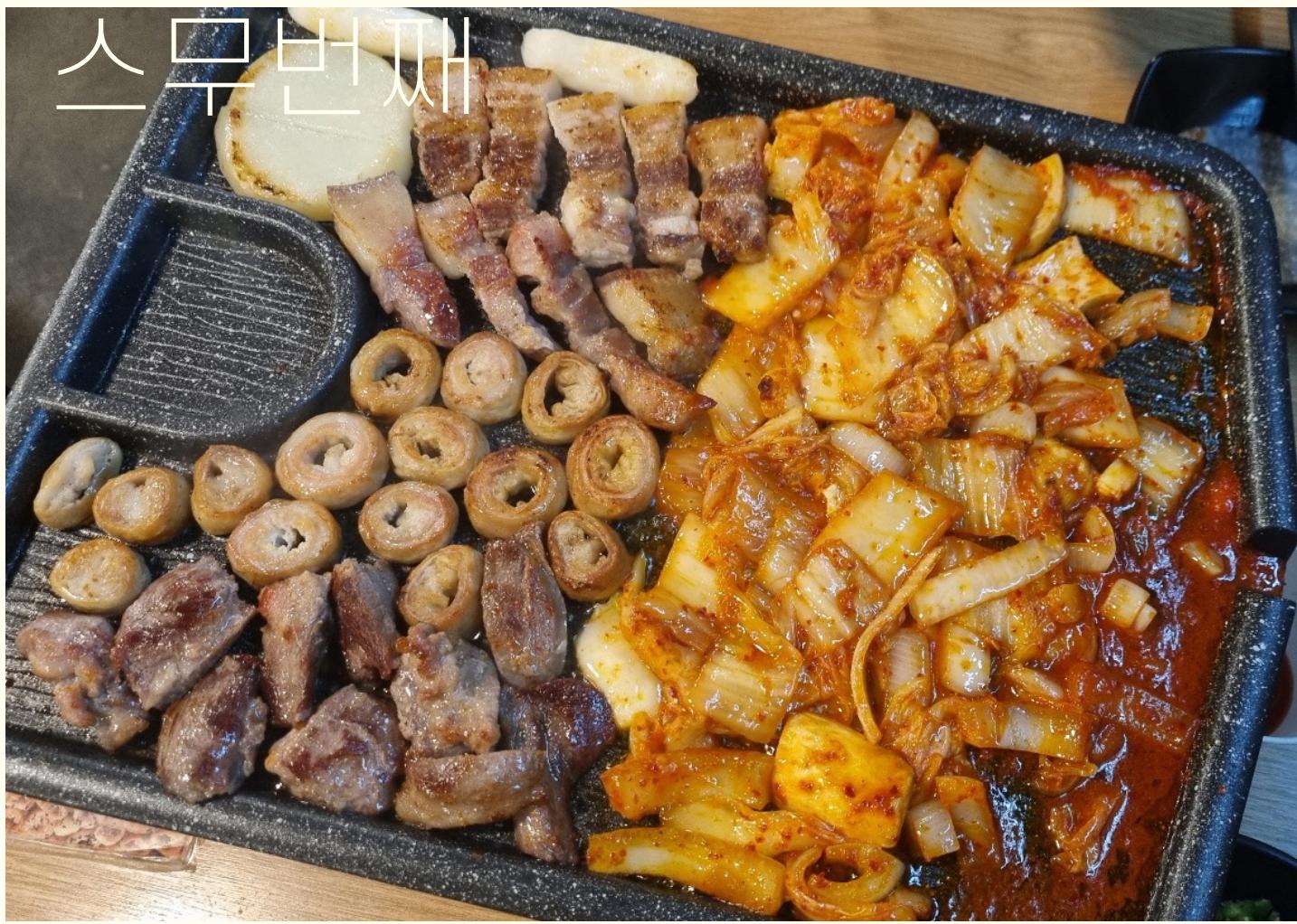
지금 이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 _ pighaedlab

TIME NOW

2024. 2

스무번째



김유주

헬로, 마이 프렌드

김희진

솔기의 어법에서

이채연

슬럼프 극복을 위한 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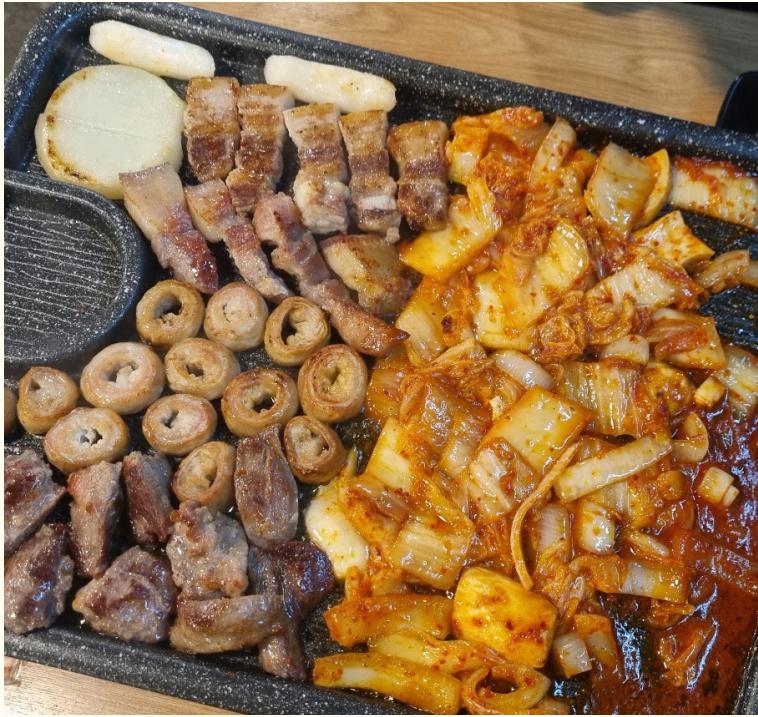
오종원

중장기 콘텐츠 : 자전거를 타자(2)

김가영

사람은 죽고 사랑은 남고 책은 읽힌다

Pighead Lab



표지이미지 :

돼지 막창을 비롯한 부속 구이, 무조건 소주를 곁들여야 한다. 예전에는 잘하는 집이 아니면 안좋은 냄새가 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근래에는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어서 대체로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이 집의 경우 지나치게 냄새를 빼려다 보니 살짝 망망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쫄깃하고 크리스피한 겉감이 있는 막창을 하나 집어 소금에 콕 찍어가지고 한 입 문 다음 소주를 털어 넣으면 그날 하루의 근심을 씻어내는 듯 하다. 이걸 먹고 나면 반드시 볶음밥을 먹어야 한다.



헬로, 마이 프렌드

김 유 주
쉬어가는 사람

“헬로, 마이 프렌드?”

태국 빠이를 여행하다 알게 된 B동생을 우돈타니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우리는 당장 만나서 식당으로 갔다. 항정살 구이와 곱창구이, 뜨ppard 등의 음식과 맥주를 몇 병 시켜 반가운 이야기 꽃을 피우는데, 셋 모두 평소랑 달리 빠르게 지쳐버렸다. 이 식당은 에어컨이 없는 오픈형 실내였다. 야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또 실내라고 하기엔 문이나 벽이 다 갖춰지지 않은, 바닥만 실내인 척 하는 그런 곳이었다. 더위에 지쳐 점점 말을 잃어가던 우리는 밖이 어두워지자 거리로 나갔다.

셋이서 거리를 걷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문득 눈여겨 봤던 곳이 떠올랐다.

“내가 봄둔 곳이 있는데 같이 갈래?”

“어딘데?”

“서울 우리동네 골목 어귀에 있을 법한 술집.”

“응? 그런 곳이 있어? 우돈타니에?”

“ㅎ ㅎ 일단 앞에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도 좋아. 어때?”

우돈타니를 돌아다니며 눈여겨 봄둔 술집이었다. 정말 서울 우리 동네 골목 어딘가 쯤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의 술집이었는데, 앞에 가보니 마침 영업 중인 것 같았다.

날 믿고 따라온 친구와 B동생은 내 뒤로 줄지어 서 있고, 내가 문을 살짝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테이블은 세 개였는데, 오른쪽 테이블에 8명 정도 되는 남성들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마침 그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는데 나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이어서 옆에 있던 한 두 명이 손을 흔들더니 다들 오랜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나에게 손을 흔들어댔다.

나는 최대한 상냥하게 (하지만 어색하게) 웃어보이고는 문을 닫았다.

“야.. 들어가야겠는데?”

“왜”

“...안에서 나를 엄청 반겨”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들어가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분위기를 좀 보자. 이상한 곳 같진 않아.”

그렇게 우리 셋은 들어가서 구석에 테이블 한 자리를 차지했다.

메뉴판도 딱 서울 동네 술집 메뉴판 같았는데, 배가 불러 간단한 튀김 안주들을 시키고 맥주를 주문했다. 얼마 안 있어 앱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 카트를 밀며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잔을 내려놓는데, 우리모두 놀라고 말았다.

“야 이게 뭐야? 얼음잔이야?????”

동남아에는 얼음 맥주가 있다. 잔에 얼음을 가득 넣고 맥주를 부어 마시는 건데, 보통 맥주를 주문하면 얼음 맥주가 나온다. 미지근한 맥주가 얼음을 녹이며 맑고 해지는 것이 싫어서 어쩌다 차가운 맥주병이 나오면 황재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런데 직원이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것은 우리나라 술집에서도 보기 어려운 얼음 잔이었다. 손잡이가 달린 묵직한 유리잔을 냉동실에서 꺼냈는지 잔을 얼음이 얇게 둘러싸고 있었다.

셋다 거북이마냥 머리를 내밀고 잔을 구경했다.

“진짜 얼음 잔이네??????”

“이거 한 병 나눠먹는 건 안 되겠다.”

재빠르게 우리 셋은 눈으로 한 마음임을 확인하고 맥주 두병을 더 주문했다.

오랜만에 마시는 차갑다 못해 목구멍을 얼려버릴 것 같은 맥주에 우리는 신이 났다.

8명이었던 술자리의 아저씨들은 어느새 세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 중 한명이 우리에게 계속 친한 척을 하더니 이내 우리의 테이블에 자리를 틀었다.

“웨얼아유프롬?”

“코리아. 유, 타일랜드?”

“예스 아임 타이. 벗 아임 프롬 라오스”

이 친구는 라오스에서 한국 사장님 밑에서 일하다가 어젠가 우돈타니로 돌아왔고, 곧 다시 라오스로 간다고 했다. 8명의 남성들은 어릴적 친구들인 것 같았다.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한 살 어렸고, 또래라고 생각하니 처음보다 편하게 느껴졌다.

콩글리쉬가 오가고 시끌벅적한 가운데 한 명이 더 합석했다. 이 친구는 조금 내성적이긴 하지만 잘 웃고 예의 있으면서도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친구였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국적도 성별도 나이도 버리고 막역한 사이처럼 웃고 떠들었다.

“야~~ 너 그 모자는 어디서 났냐? 유얼 캡! 기브 미!!”

우리는 라오스에서 일한다는 친구(이하 라오스라고 하겠다)의 모자를 돌려쓰며 훅한 라오스의 머리를 보고 유쾌하게 웃고 맥주잔을 부딪쳤다.

그렇게 웃고 떠드는데 직원이 퇴근하는 게 보였다. 우리는 직원을 급히 붙잡고 물었다.

“나우 클로즈?”

직원은 영어를 못하는지 당황해하며 합석한 친구들을 쳐다봤다.

“아니 사장은 어디 간거야?”

“그러니까. 아까부터 사장은 없고 직원 혼자 다 하잖아.”

“직원이 가는데 우리도 가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조용히 웃기만 하던 라오스의 친구가 자길 가리키며 “아임 오너 오브 디스 바”라고 했다.

“뭐? 씨이오? 유 오너??”

“야 장난하지 말라그래. 유 키딩!!!!”

“라이 라이!”

“아임 오너. 디스 이즈 마이샵”

“리얼리??”

“예스, 리얼리 ㅎㅎ”

“왓????????? 너가 오너라고???”

“예스~ 아임 ~ 오너~~”

우리 셋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서로 멍청한 표정을 주고받고 있었다. 반면에 사장이라는 친구는 여유가 넘쳤다. 그리고, 직원이 사장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장이라던 친구는 손을 흔들며 직원을 보냈다.

“뭐야, 진짠가봐.”

“우리 사장이랑 술 먹고 있던거야?”

사장은 사람좋은 웃음을 지으며 간판 불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리고는 양주를 가지고 왔다.

“아아~ 나는 양주는 안 먹어. 난 맥주만 먹어. 아임 온리 비어! 양주 노노”

모두가 각자의 잔을 채우고 술잔을 부딪쳤다. 정말 동네 단골 술집에서 영업 끝내고 우리끼리 술 먹는 자리가 된 것 같았다.

거기에 갑자기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다. 90년대 유행가들이 향수를 자극했다.

완벽했다. 모든 것이 나의 동네에서 나의 오랜 친구들과 편안히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날들과 겹쳤다.

기억 저편에서 잊혀질 뻔한 한국 노래들이 우리를 더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헤이 오너! 내가 노래 틀어줄게. 아이! 초이스! 코리아 송! 오케이?”

“음? 쏘리 아이돈 언더스탠”

“에헤이~ 아이 원 투 플레이 코리아송. 오케이?”

“아하~ 오케이~”

그리고 사장이 나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한국에서 핸드폰을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해서 듣던 방식이었다.

“내가 진짜 90년대 음악을 보여주지”

이어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가라가라가쳐 확간혀~ 내안에 갇혀 확간혀~’

그리고 바로 B동생이 의자를 뒤로 빼서 자세를 바꾸며 한 마디 했다.

“아~~~~~ 이 언니들 못 말려!”

이미 빠이에서 현지인들과 춤추며 놀던 우리를 경험한 B동생은 노래가 흘러나오자마자 이후의 상황을 예견한 듯 의자를 뒤로 빼서 관람모드로 들어갔다.

나는 카운터 뒤쪽에서부터 걸어나오며 온갖 막춤을 선보였다.

음악에 몸을 맡기고 한 명 두 명 일으켜 세우다보니 동네 술집은 건전한 흥으로 가득 찼다.

“필!!!! 필 프리!!!! 필더 프리덤!!! 프리덤프리덤!!! 오케이?”

나는 되는대로 자유를 외쳤고 다들 나와서 되는대로 몸을 움직였다. 각자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땀에 젖을 정도로 춤을 추었다.

“아~~~~~ 이거지! 자유다~~~”

수줍음 많은 B동생은 앉아서 우릴 보며 자지러지고 우리는 너나할거 없이 음악에 몸을 맡겼다. 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허공에 나 홀로 부유하는 상상에 빠져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이 땀에 젖은 몸을 마음껏 움직였다. 그리고 그런 나를 따라서 다들 움직였다. 이 순간 우리는 진심으로 자유를 느끼기 위해 온 몸으로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나의 언행을 통제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또 타인에게 평가되어 입과 기억에 오르내릴 생각에 몸을 사렸을 것이다. 그게, 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내 모습이었다.

나는 날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기분 좋게 발가벗은 기분.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음악이 끝나고 다들 기진맥진해져서 하나 둘 자리에 앉았다.

“헤이 마이 프렌드. 아이 원투 쇼 유 마이 키친”

“오케이 고 키친 투게더?????”

“예스 팔로미”

나는 사장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사장이 요리하는 모습이며 냉장고까지 뮤직뱅크의 카메라 감독이 되어 현란한 무빙을 곁들여 카메라에 담았다.

주방 밖에서는 친구와 B동생이 나를 만류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아~ 주방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언니~~ 이제 나와~~~”

“아니 내 친구가 찍어달라잖아~ 두유원트 카메라, 료잇?”

“예스. 아임 쿠킹”

“오케이.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사장과 나는 장난스런 표정과 말을 주고받으며 주방에서 아이처럼 놀았다. 사장은 프로답게 그 와중에도 멋진 요리를 만들었다.

“오오~”

해산물 튀김이었다.

우리 모두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사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땡큐!”

“땡큐땡큐. 야 근데 맛은 딱히 없어보인다? 조명 탓인가?”

사장은 어떻게 알아들은 건지 “노노노노” 하며 먼저 하나 먹어보였다.

우리는 또 한번 아이처럼 웃었고, 다시 서로를 놀리고 유치한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었다. 그리고 당연히 내일 다시 만날 것처럼 기분 좋게 인사하고 조금은 아쉬워하며 가게를 나왔다.

여행하면서 동네 아지트 같은 장소가 그리웠다. 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익숙한 것이 그리웠던 것 같다. 그리고 이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지트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 듯이 신나게 놀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우연이었고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눈을 떴을 때, 내 옆엔 라오스의 모자가 있었다.

“야 너 기억나? 니가 그 친구 모자 뺏어온거?”

“오마이갓.”

“우리 계산도 안 했어.”

“뭐?”

“보니까 맥주 두병 값만 계산 됐더라. 그리고 오늘 또 오래.”

“아 못가~ 두 번은 못 놀아.”

숙취로 이불을 끌어안고 돌아 누우면서 나는 웃음이 났다.

한국에 있는 기분이었다. 정말 편한 친구들과 신나게 논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모든 근심들로부터 해방된 듯이.

“우리, 우돈타니에 더 있을래?” 



솔기의 어법에서

김희진
노동자

천천히 가려고 시작한 것인데, 오히려 강한 일탈에 대한 집착을 부른다. 아득한 조상을 해치는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칼을 들어 휘두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고민하곤 한다. 보고 있는 세계를 3개의 젓가락으로 설명하는 어른이 많은 현실에, 그 위에 숟가락을 몇 개 더 놓아 면으로 하는 분할이 오히려 잘 보는 법 아닌가 하는 말이다. 하긴 그런 의미에서는 구상이라는 말도 기만적이다.

솔기란 일반적으로 물질이나 세계를 어떤 관습 없이 진실 그대로 바라보고 나타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인류사 전반을 거쳐 끊임없이 발전해온 고민이라는 점에서 어떤 역사적 양식이나, 시대를 나타내기 위한 운동이라는 설명으로 그칠 수 없기도 하다. 추종자는 반대로 이렇게 매일 마주한 대상에 대하여 각자의 의식이나 무의식이 씌워낸 틀을 지워내고 남은 것만을 바라보고 재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과거를 답습하는 것에는 어떠한 갈등도 필연적일 수 없다. 화보는 다시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끝없이 구분하기 시작한다. 솔기의 반대는 이상이 아니라 거짓이다. 하지만 닫힌 세계의 엔트로피 즉, 틀은 인식을 멈추지 않는 한 비가역적으로 덧씌워진다. 기록의 실재는 항상 한 순간 직전의 시각에 의존하기에 A씨의 솔기, 그러니까 동시대성과 그 극한인 순간을 배제하는 솔기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사고는 바로 한계를 맞이한다. 위의 공리 아래 인식 이전 최초의 세계가 가장 솔기에 가깝다는 솔기에서, 반대로 세계는 인식 안에 있는 한 진실에서 점점 멀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한 솔기는 적어도 혁명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할 수 없는 솔기, 인지할수록 멀어지는 솔기를 솔기라 부를 수 있을까. 지각할 수 없는 본질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가정해야 하나 고민한다. 애초에 솔기라는 객관적 본질은 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정신의 인식 아래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제 솔기를 기호의 언어 아래에 새롭게 정의하자. 근사라는 말이 ‘실제에 더 어울릴지 모른다. 이 언어가 객관에 가까워질수록, 관성에서 멀어질수록 손꼽은 핍진함을 다시 획득한다. 아니 반대로 이 순수하게 강박적인 틀을 닥치는 대로 씌워내고, 감각, 그보다 더 집요하게 관찰하여 그 여집합, 대립한 신을 솔기라 말하는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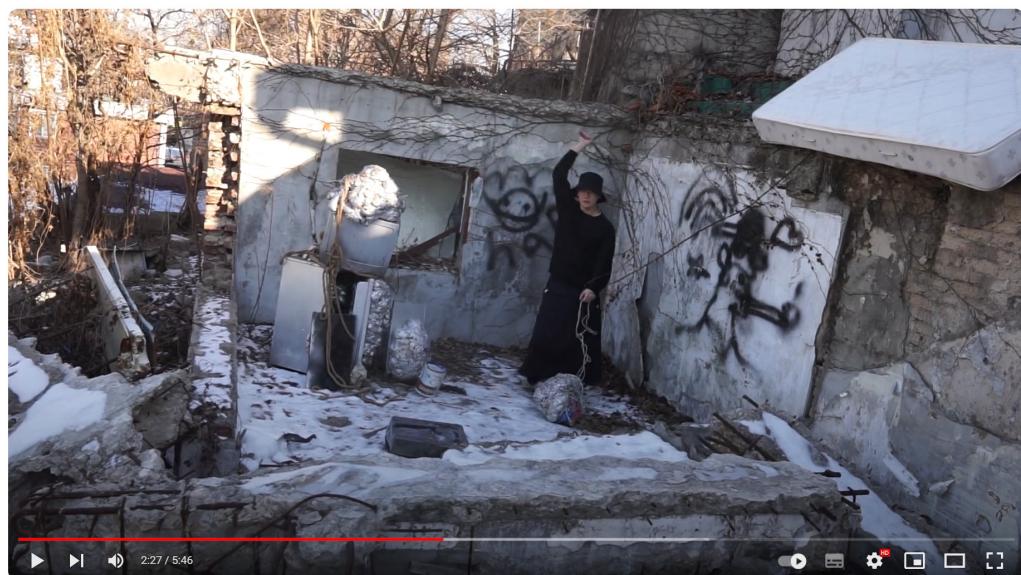
이는 이미 어떤 매체의 문법 안에 속성을 꿰맞추어 재현하는 예술가들이 무언가를 피해 쫓고 있는 신화이다. 본질이라는 권력은 평면을 구부려 빛과 어둠을 셋바퀴에 가둔다. 그래서 광신도는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간다. 편향 없이 모든 것을 직접 관찰해야 한다. 개별의 구체성을 물리적인 언어로 필요, 충분하도록 치환하고, 이 언어의 단어를 인식되는 대상으로 구성한다. 고매한 것은 고매한 그대로, 초라한 것은 초라한 그대로, 차라리 그렇게 정의된 속성의 절댓값이 없는 것처럼 경험을 현상 자체로 바라보고, 모두를 그 관계 안에서 적어낸다. 선망이나 동정 등의 감정도 지워내고 무미건조한 흑과 백색(빛과 어둠)으로 각자를 각자의 위치에 정확히 위치시켜야 한다.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조차 사라진다. 존재 그 자체의 사소함을 이용할 때이다. 시간의 비가역성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 시기, 극단적으로 순간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을 표현해야 한다. 또, 이는 다시 한순간 후의 나에게 거부당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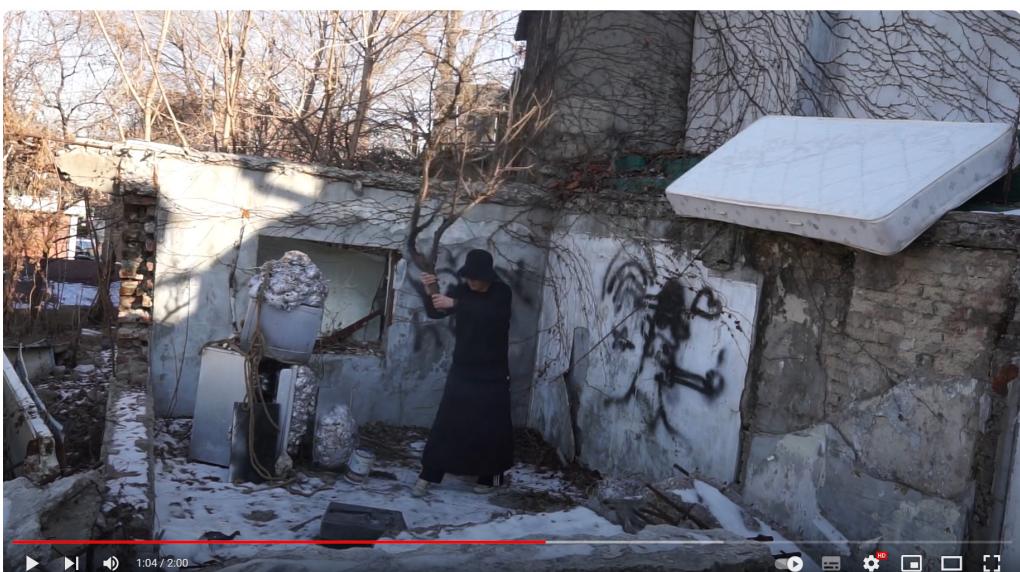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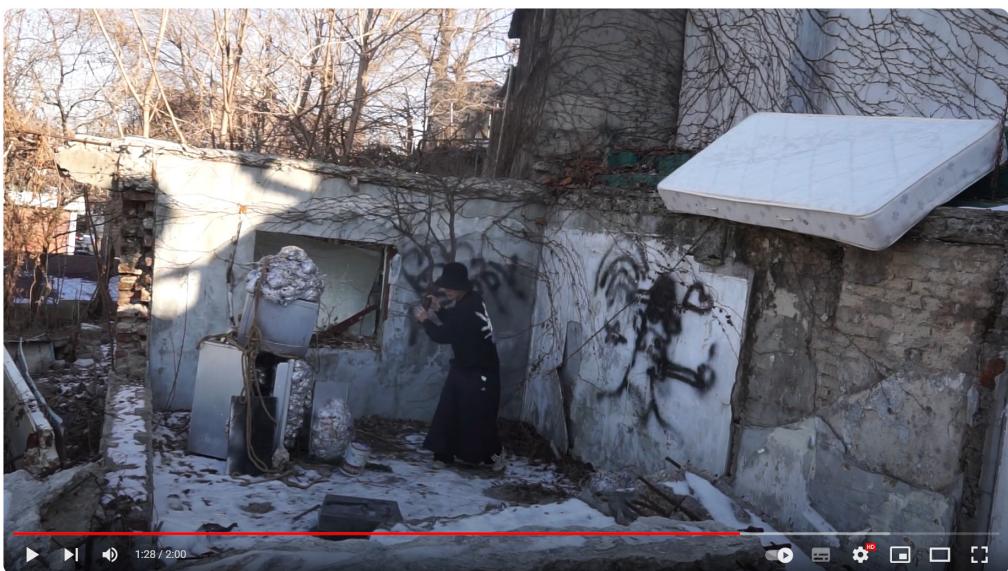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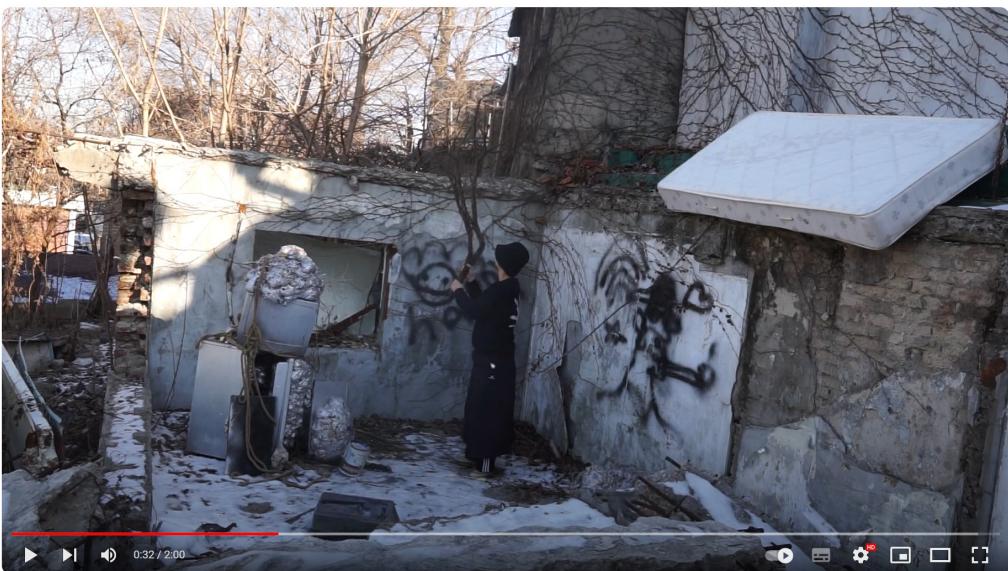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왔던 창조를 위한 파괴를 시작하자. 무용수의 역할을 맡은 B는 작품에서 이미 시간의 연속성을 잘라내어 단편적인 시간의 구체에 집중하였고, 이상적이지 않은, 오히려 감상이나 해석에 관련한 이미지 전달에는 관심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고립을 창출하여 다음 구체적 순간의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지도록 하였다. 단, 정말로 0의 가능성을 갖는 순간은 한 개도 없다. 무한의 표준편차를 갖는다. 그 모습은 그렇게, 그대로 폭력배를 붙잡아 잠시 가둔다. 일방적인 비약은 죽고, 그에 더불어 동작이 탄생한다.

B의 동선은 그 자체로 수행이다. 각 영역에 관련한 파장을 운동시키고, 때론 이완하며, 무기로 만든다.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 자기성찰이고 때로는 붕대가 되어 윤곽을 지탱한다.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하다. 몸이 하는 고민을 조형적 원리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술이고, 행진이자 개념이다. 이는 소비와 다름없는 갈겨냄이기 때문에 대단히 방대한 범위를 갖고 흘러내린다. 차라리 설명하기에는 그다지 서사가 없는 사건들에 불과하다. 어쩌면 발걸음의 개수를 측정하는 기계나 시계를 걸어놓은 것이 더 합당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똑딱거리는 바늘은 부드러운 살결을 찌를 때 재미있는 소리가 난다. 전혀 쓸모없는 유희를 위해 아픔을 투자한다. 혼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말을 여는 일은 좀 싫다. 고기를 찌를 때 터지는 혈관과 같은 순간을 담아 충격을 예언하고 싶다. 흥미롭게도, 난 경고했지만 너는 지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본다. 달 밑에 앉은 나는 절벽 위에 서서 지나치고 싶지 않은 향기를 다시 바라본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나무를 껴안았다. 꽂꽂하고 우람하며 잘 서 있는 나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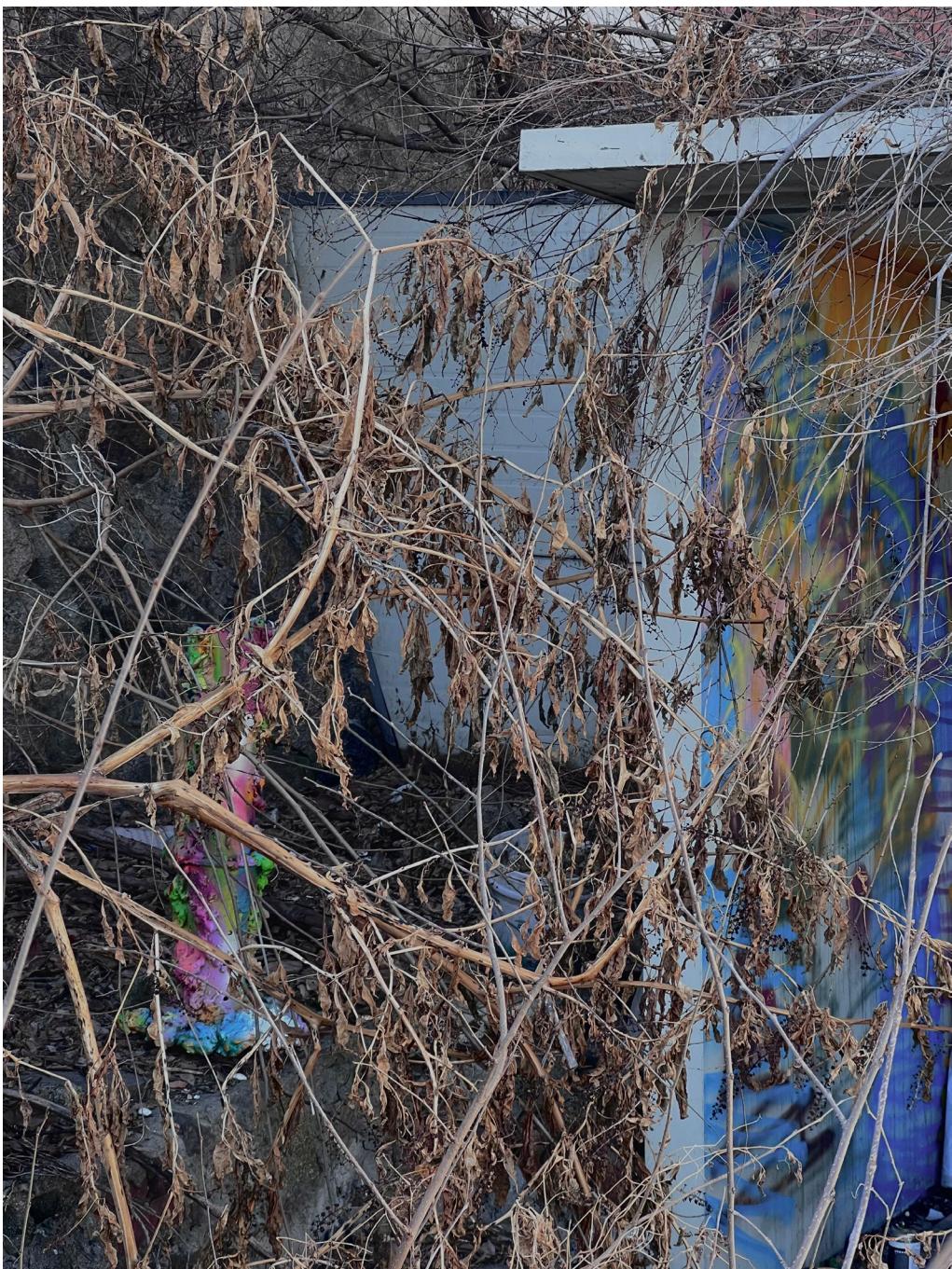
과거와 단절시키고, 독립시킨다는 것은 역사가 해오지 않았던 것을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과거와의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일일지 모른다. 반대로 혼하기기에 생소한 것 또는 최초인 것을 봄으로써 기존에 이미 주어진 것들이 쌓아왔던 틀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내어야 한다. 그리고 시각을 새로 찾아낸 사람의 눈을 가진 듯이, 의식적으로 기억을 지워내어 구체적 사물을 살려내는,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의 소재로는 어떤 권위를 갖지 않아 특별히 관심받은 적 없는 가장 평범한 하찮음이 적절하게 작용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대체로 감각은 고정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한 번 뜨거운 온도의 의식을 치른 뒤에는 단단히 굳어 바퀴, 그러니까 고정되어 움직임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답습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극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분명히 연극을 받들지 않은 순수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하거나 볼 수 있는 진실성이 있을지 모른다. 벌써 본인이 아카데미즘의 영역 밖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 작업을 만들고자 하는 처지에서 구태여 그를 옹호하고 싶기도 하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인 이상 완벽한 진실이란 볼 수 없기도 하다. 이는 귀류법으로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 참인 명제이기도 한데, 아카데미 밖의 내가 보는 것이 완벽한 본질이고, 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세상은 나에 의해 주관되는 전체주의적 부분집합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이미 나는 한쪽의 눈이 없다. 그리고 이런 전제 아래에서 나와 타자가 솔기를 갈구해온 것 또한 아니다. 심지어 이러한 진실성을 강조하며 자신한 B 본인도 인간은 기계가 아니며 대상을 기계적으로 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카데미에 있을 수 없는 나는 적게 부패한 눈으로 인간의 진실에 대해 포착해야 한다. 어쨌든 선택하여 내디딘 발이고, 이의 가능성이나 한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외쳐온 솔기의 연극이다. 🎭





지금 이시각 2024. 2





슬럼프 극복을 위한 세화

이 채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세화: 새해를 기념하거나 축하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린 그림.

세화를 그리게 된 근황

지난 12월 개인전 마지막날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다. 계단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별이 보일정도로 제대로 넘어졌다. 그 다음 날 진통제를 먹고, 부은 발목에 파스를 붙이고 전시 철수를 했다. 많이 아프고 불편 했다. 빨리 철수 끝내고 맘껏 자고, 치료받고, 전시 후 뒷정리들 - 작품 정리하고, 출간한 책 판매처(입고처)도 찾아 봐야지 했다. 그런데 발목이 아프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니 하기 싫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느낌 익숙하다. 전시 끝난 후의 루틴 같이 당연한 듯 찾아오는 상태. 일명 슬럼프.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호환 마마 같은 것이다. 일단 만사가 귀찮고 부정적인 생각이 차오르는 것이 시작이다.

- 전시 끝난 후 내 머리 안에서 니 작업의 별로야~ 후져~ 라고 하는 소리가 쏘이 댔다.
- 내 작업은 물론이고, 다른 작가의 작품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 보인다. (죄송합니다. ㅜ—)
- 부질없고 지겹다.
- 작업은 나와는 다른 세상 같다.

이런 마음은 가끔 찾아온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특히 전시가 끝난 뒤에 오고야 만다. 대충 어떤 패턴으로 훌러갈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해결방법도 알고 있다. 바쁘게 다른 일을 해서 잊혀지게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비 온 뒤 길가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처럼 집에서 몇 일을 보내는 중, 가족들이 연 이어 독감에 걸렸다. 나는 안 걸렸다. 주부로서 소임을 다하며 아픈 가족들 챙기기를 몇일 하다 보니 지치고 억울했다. 안 그래도 슬럼프 때문에 심난한데 말이다. 나도 아프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눕고 싶다! 나도 돌봄을 받고 싶다!! (작년 겨울에도 나 빼고 가족들이 연이어 코로나에 걸렸다. 작년과 올해 연말



그림1_청룡, 디지털페이팅, 2024

연시는 병수발 하며 보냈다.)

독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마자 아들이 숨바꼭질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다. 3주간 기부스다. 바로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집에서 아들과 집콕 하는 날이 이어졌다. 이렇게 점점… 전시 후 뒷정리는 밀려났다.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힘이 드는 일이 아닌데, 다친 발목이 회복이 더딘 탓인지 슬럼프에 끝 절여진 마음 탓인지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이기 시도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주변과 나를 돌보지도 못하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무언가를 그냥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잡생각에는 몸을 쓰는 게 좋다. 아르바이트 할까 하다가 내 발목상태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무리이고, 곧 명절연휴가 있어서 패스했다. 그 다음으로 올해 전시기획안을 써서 공모사업에 지원해볼까 하다가 작업에 흥이 안 나서 패스. 탈락의 쓰라림이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서 싫기도 했다.

예전에 민화를 꽤 그렸었다. 민화의 본질은-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다 좋게 하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다. 그래 그려보자! 그냥. 그냥이 아닌가?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다. 따지지 말자. 지금은 그냥이다. 용의 해이니까 용을 그리자. 예로부터 조상들은 그 해의 수호신으로 십이지간지를 그렸다. 그림이 괜찮게 그려지면 2024년 수호신인 블루드레곤님이 보시고 감화되어서 중박쯤 되는 복을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아~ 손아~ 일단 그려라. 다른 일은 제쳐두고~ 😺



그림2_청룡, 디지털페이팅, 2024.jpg



사진1 아들의 기브스에 용을 그렸다



중장기 콘텐츠 : 자전거를 타자(2)

오종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 지난달에 쓴 글을 다시 읽어보니, 좀 아차 하는 지점이 있었다. 아무래도 본 글은 읽는 이들에게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형식이 너무 딱딱하단 느낌이 들더라. 그러다 보니 이번 글에는 동기부여를 일으키되 조금 느슨한 글을 의도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피드백이 필요한 상태 같다. 누구든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계속 연재해보고자 한다.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몇 편을 더 써 책의 형식으로 묶어보는 게 목표이다.

자전거 입문기

내가 지금처럼 자전거를 타게 된 계기는 처음엔 단순히 이동수단이 필요해서였다. 그리고 아마 이 글을 읽을 많은 이들에게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권장하며, 자전거가 필요한 제 1의 이유로 소개한다.

내가 과거에 살던 집은 서울의 외각, 교통이 불편한 산동네의 아파트 단지였다. 어딘가를 이동하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고, 그것도 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항상 아침마다 좁은 도로는 출퇴근 차량으로 붐비기 마련이었다. ‘낙후’라는 단어까진 아니지만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 인도나 도로나 다 비좁았다. 또한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하다 보니 어떤 부가적인 교통수단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잠깐, 자전거를 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자면. 1) 언덕이나 산이 많고 동네의 도로나 인도가 좁고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곳, 2) 목적지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서, 역 근처 등에 자전거를 오래 방치해야 하는 경우이다. 도로가 좁고 차가 많으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차량의 교통혼잡에 휘말릴 수 있고 (당연히 자전거도 도로교통을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를 역 같은 곳에 오래 묶어놓게 된다면 비나 눈, 파손이나 도난에 취약해진다.

다시 내 얘기로 돌아와, 그렇게 산동네에 살다가 적당히 도심지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환경이 꽤 좋았는데, 일단 도로와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제일 마음에 들은 것은 중랑천이 인접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한강까지 뻗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새로 잡은 직장이 거리 자체는 먼 것은 아니었으나 대중교통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5호선을 타고 1정거장, 7호선을 타고 9정거장, 다

시 3호선을 타고 2정거장을 이동해야 했는데(여기에 약간의 도보는 덤이다), 글자만 봐도 복잡한 것이 느껴지듯 그 사람 많은 지하철과 버스에 끼여서 가는 것이 썩 피곤한 일이었다. 그런데 상기한대로, 우리 집과 직장이 중랑천과 한강 자전거 길로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자동차 외에 이동수단을 만들고자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때 내가 결정한 첫 이동수단은 자전거가 아닌 전기킥보드¹⁾였다. 나는 지독한 운동치였고 또 몸 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페달링(페달질)을 해야 하는 자전거는 관심 외였다. 그래서 시장 등을 오갈 때도 편하게 백팩 하나 매고 킥보드로 이동하면 되겠구나 싶었다. 출퇴근의 경우에도 당시 왕복 약 30km정도의 거리였지만 자전거 도로를 통해 한동안은 무난하고 편하게 이용이 가능했다. 그때 처음으로 바람을 가르는 이동수단의 즐거움을 맛본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동수단을 탄다 보면 반드시 급정거를 하거나 노면이 안 좋아 주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1) 전기 킥보드의 경우 선 자세로 탑승을 하게 되는데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게 되면 관성에 의해 몸이 그대로 앞으로 날라가는 것이다. 심지어 백팩 같은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더욱 배가 된다.

2) 킥보드는 브레이크가 전자식(모터를 멈추게 하는 방식)이며 급한 상황일 때는 내 발로 직접 (물리적)제동을 걸어야 한다. 전자식 브레이크는 제동력이 약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 발을 뗀다는 것은, 이미 킥보드에 서있는 상태에서 다소 불안한 행동이었다. 교차로에서 버스나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험과,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겪고 나니 결국 킥보드를 그만 타게 되었다. 다시 다른 팬찮은 이동수단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킥보드로 자전거 도로를 왕복하던 때에 사람들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것이다.

전기자전거라고 해서 마냥 전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페달링을 병행해줘야 하는데²⁾ 당연히 일반 자전거보다는 훨씬 편하고 언덕이던 어떤 길이던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 자전거를 접하려 하고, 어느정도 기회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면 전기자전거를 추천해본다. 페달링을 비롯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전기자전거가 훨씬 완화해줄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전기자전거를 타고 나서 자전거의 세계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

차와 자전거, 그 효율적인 선택

혹자는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애초 차량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답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에 차로 이동해보면 그런 얘기를 못한다고.

누구나 차가 편하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내 경우에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과는 별개로 꽉 막히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겪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나는 현재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 직장을 두고 있고 거주지와는 약 10km정도 떨어져 있다. 차량으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는 넉넉히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1) 전기킥보드 : 일어선 자세로 탑승하는 전동 탈 것으로, 스로틀 방식(레버를 당기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방식)의 탈 것이다.

2) 전기자전거 역시 스로틀 방식과 패스 방식(전기의 힘이 작동하지만 페달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즉 내가 페달링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구분되는데, 내가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던 당시에는 스로틀 방식은 전기 스쿠터로 인식되어 자전거 도로 통행이 합법은 아니었다.

거리이다. 하지만 낮시간대, 특히 출퇴근 시간이 되면 이것은 바로 늘어난다. 거리가 좀더 떨어졌다면, 혹은 차량이 밀집하는 곳이면 더더욱 심할 것이다.

그런데 직장과 집 사이에 청계천을 끼고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30~40분 정도면 충분하다. 사람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따릉이의 경우 시속 15~20km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한다. 서울의 크기가 약 605 km²라고 하고 폭이 대략 30km정도라고 쳤을 때, 자전거를 이용하면 두어 시간이면 어느정도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이론적인 경우이고, 실제로 자전거를 주행하면 초보자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적당히 취미로 타는 이들도 한두시간을 타고나면 다소 지치고 땀이나면서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또 경우에 따라 언덕이나 불편한 길을 만나 자체될 수 있다. 그래서 이동수단 자체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1시간 이내 거리는 자전거가, 그 이상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또 하나는 주차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누구나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주차로 고민하는 경험이 없지 않다. 근래에는 공영 주차장나 유료 주차장, 혹은 관련된 어플을 활용하는 등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곳을 찾아가 주차를 하고 다시 목적지로 가는 것이며, 차 빼기 전에 주차비 정산이며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자전거는 목적지 인근이나 바로 앞에 묶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덜하다. 이게 제일 빛을 발할 때는 재래시장이나 작은 마트 등을 들릴 때인데, 번거롭게 차를 주차를 하고 멀리 걸을 필요 없이 자전거와 함께 돌아다니면 해결이 가능하니 여간 편할 수가 없다.



필자의 전기 자전거. 현재까지 만 3년 이상 타고 있는 중.

자전거의 즐거움

자전거를 타며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동수단을 다루는 즐거움일 것이다. 혹시 말을 탄던 습성이 인간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일까. 인간은 지속적으로 탈것을 활용한 스포츠를 즐겨왔다. 어떤 수단을 이용해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모종의 쾌감이 있다. 자전거, 모터 바이크, 자동차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썰매나 보드, 카누나 보트를 타는 것도 비슷한 이유 아닐까. 어떤 수단을 활용하여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고는 한다. 속도를 즐기는 것인지 조종하는 것이 즐거운 건지, 이동을 하는 게 즐거운 건지. 꼭 한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어릴 적 눈썰매를 타며 즐겼던 추억은 누구나 있을 것처럼 탈 것이 주는 즐거움은 인간에게 심어져 내려오는 것 같다.

내가 비로소 자전거가 즐겁다고 느꼈던 것은, 퇴근 후 한강을 통해 집으로 돌아 오면서였다. 늦은 시간,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키고 한강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데 일단 서울의 야경이 너무 멋있더라. 물론 나도 직장인의 하나일 때는 서울의 야경이 직장인의 눈물이라는 것에 동감하지만, 퇴근 후 자유의 몸으로 맞이하는 야경은 얼마나 장관이던지. 서울이 괜히 메가시티가 아니구나, 강물에 반사되는 야경과 수많은 가로등들로 인해 밤이라고 해서 걱정되거나 무섭기 보다, 서울의 또 다른一面을 보는 것 같아 그리 설렐 수가 없었다. 더욱이 도시의 불빛과 기분 좋은 바람을 가로지르는 것은 차를 이용한 드라이브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뭔가 더 피부에 와닿는다고 해야 할까?

또 하나 야경도 야경이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퇴근 후 운동을 즐기러 한강에 나와 있다. 한참 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정말 많은 이들이 한강에 나와있다. 각자 산책과 러닝, 자전거 등 각자의 취향대로 운동을 하는데 나도 묘한 호기심과 이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충동처럼 솟아오르더라. 특히나 나는 운동과는 담을 쌓아왔고 꺽해야 산책 정도였었는데, 이들처럼 나를 관리하고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또 퇴근 후 미리 준비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퇴근 길에 운동을 병행한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큰 자극 같은 것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자전거를 입문하기 직전에는 일과 현실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 늘 내 뒤로 스멀스멀 존재하고 있었다. 퇴근 후 텅 빈 집에 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때때로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 괜히 없는 술약속이나 소일거리를 만들어 내 자신의 어떤 어두운 면과 마주치지 않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페달링을 한다는 게, 나도 한강에 있는 이들처럼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위안받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운동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아마 자전거가 아니었으면 내가 몸소 느낄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퇴근길의 이동 수단으로 입문한 자전거다 보니, 또 전기자전거라 마냥 편할 것이라 생각으로 접근했다 보니 막연히 운동이라는 것이 가진 거부감을 자연스럽게 건너뛸 수 있었고, 그러면서 운동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조금씩 목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것이다.

이제 어디 가서 “자전거를 취미로 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자전거로 다니던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되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관련 서비스가 매우 잘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는 편에 속하다 보니 서울 이내 정도의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실제로 자전거가 익숙해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사람 많고 환승해야 하는 대중교통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경지도 보고 도시구경도 하고 또 약간의 사색을 겸하다 보면(그래도 운전은 운전이라고 정신을 놓는다는 것은 아니다) 적당히 건강해지는 느낌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

후에 욕심이 생겨 로드자전거라는 장르에 입문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이동을 하다 보니 새로운 도시와 풍경을 만나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것이 아니더라. 후에 소개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토종주와 사대강 종주, 동해안 종주와 제주도 종주라는 대표적인 종주들이 있고 이 외에도 전국에 주요 도시나 지역마다 자전거 길을 어느정도 마련해놓고 있는데, 그 길들이 대체로 지역의 유명한 곳들을 지나가게끔 구성해 놔서 라이딩을 하며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해 놓았다. 만약 차를 이용하여 이곳들을 방문하였다면 당연히 운전부터 시작해서 차를 어디에 대고 어떻게 방문할지 그런 고민들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면 주차장이나 길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목적지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으며, 자연 풍경의 경우에도 아예 근처나 안에서 직접 경험하듯 느껴볼 수도 있다. 식당을 찾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차량이었다면 맛집을 검색하고 주차장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을 때, 자전거의 경우 적당히 길을 가다 오래된 맛집의 포스를 풍기는 곳을 발견하면 일단 들어가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 방식은 다양하나, 방식을 분문하고 자전거로 이동한다는 것은 꼭 어딘가를 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거나 뜻하지 않았던 것들을 종종 마주치고는 한다. 그래 써놓고 보니 자전거로 하는 여행이란 즐거운 우연이 무척 많기에 더욱 재밌는 것 같다.

(다음에 계속) 



자전거로 섬진강을 종주 중 우연히 마주친 화계장터.
예측하지 못한 여행지였기에 그 재미가 더 크다.



사람은 죽고 사랑은 남고 책은 읽힌다

김 가영

책과 그림을 읽는 사람

1) 중국의 사마천이 쓴 역사 책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사기 史記¹⁾가 되고 싶었다. 사기는 무엇보다 ‘노잼’인 내가 원하는 재미가 있는데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해석이 생기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반추하게 만드는 행간의 울림이 있기 때문이다.

2) 진나라의 시황제를 보필 하며 한 때 진나라의 실세였으나, 결국 권력에서 밀려나고 몰락하며 자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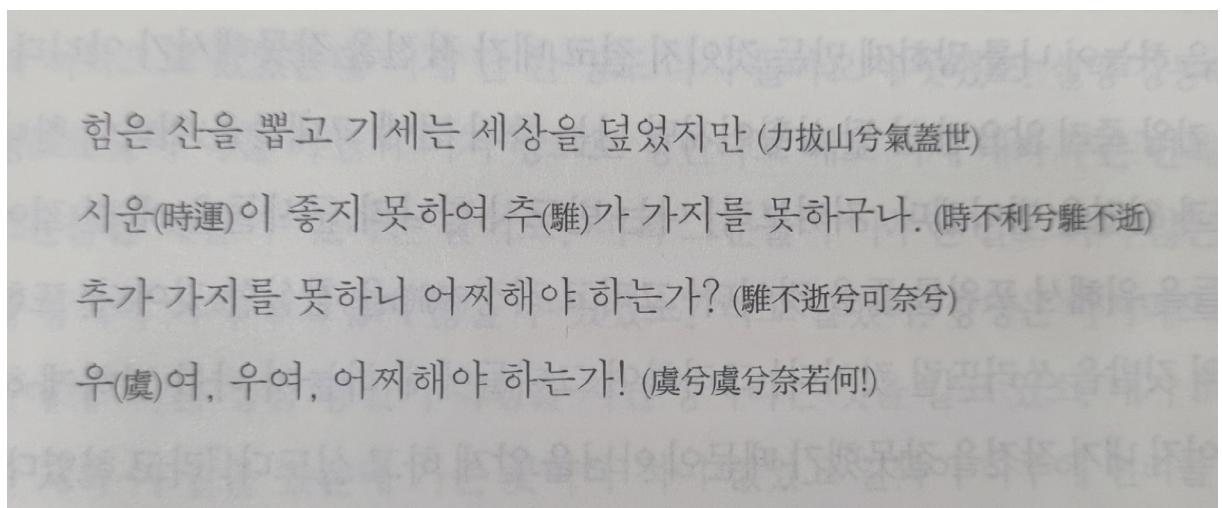
여불위²⁾의 욕망과 몰락은 매혹이다. vouloir c'est pouvoir. 원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이라는 이 말 그대로다. 이사의 간축객서는 언제 읽어도 언제나 명문이며 부차와 구천의 와신상담은 한탄 그 자체 아니던가. 태공망 여상이 낚은 것은 결국 문왕이고 나는 늘 그게 짜릿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항우본기다.

항우에게는 우희가 있었다. 이말인즉 우가 없다면 지금의 항우 역시 없다는 말이다. 항우는 사면초가의 해하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며 우여 우여 어찌해야 하는가 울던 남자다. 그는 실패했다. 하지만 실패자로 남지 않았다. 우가 그를 계속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는 선택할 수 있었다.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사랑하는 쪽을 택했다.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 망하는 길임을 몰랐을까. 아니다. 우는 죽는다. 그러나 우희는 항우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죽고 사랑은 남았다. 보통은 그 반대다.

인연은 한 시절이고 밀풀과 썰풀이어서 만난 것은 반드시 흩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다. 무상의 엄정함이 이와 같이 준엄함에도 우는, 주었다. 멀어지지 않는 마음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을.

사랑은 자주 흔했다. 그러나 이렇듯 문득 드물어 나를 사로잡고야 마는 것이다. 내가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면-사기는 못 되겠지만-쓰겠다. 온통 쓰겠다. 멀어지지 않는 마음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을.

사기는 이천 년 전에 쓰였다. 이천 년 후의 내가 읽는다. 나라는 책의 행간 역시 당신이 읽어줄 것이다. 사람은 죽고 사랑은 남고 책은 읽힌다. 🌸



참고도판 : 사마천 사기(현대지성 출판), 소준섭 역, 113p 내용 중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의견을 듣습니다
문화예술인,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
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하겠습니다.
pigheadlab@gmail.com / 프로필 이미지, 필명, 자기소개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
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
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
여 피그헤드랩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2, 스무번째

발행인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www.pighae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의 : 01082339033

참여 필진 :

김가영, 김희진, 김유주, 오종원, 이채연